

근대건축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계획에 관한 연구

- 증명전(重明殿)을 중심으로 -

A Study to Guest House Plan for Positive Infriction of Modern Architecture

- Focused on Jung Myeung Jun -

이근혜* / Lee, Keun-Hye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Current city that we live in exist many modern architecture have historical meaning and high value.

This modern architecture is disappearing because study - definite thesis of concept, division of the time - of preservation wasn't advanced fully and we have the feeling of being victimized for Japanese imperialism, in addition to lack of recognition for cultural treasure value.

These days, a growing number of people tend to focus on preservation and uses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mordern architectur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constructive uses of mordern architectures by purposing analysis and preservation methods with a selected architectures which deserve to be conserved.

키워드 : 근대건축, 증명전, 보전, 리노베이션, 게스트하우스

Keywords : Modern Architecture, Jung Myeung Jun, Conservation, Renovation, Guest hous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높은 가치를 가진 다양한 근대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이란 1876년 개항이후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건축적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건축물은 전통건축과 현대 건축을 연결시켜주고, 더 나아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민족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¹⁾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신문화의 도입으로 인해서 도시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가고, 이로 인해 도심 속의 근대건축물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근대건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시기의 구분 등 보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다 근대건축물의 형성 시기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만큼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법적 제도적 보호 없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또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일반인들에게는 인식되는 면이 부족하여서 근대건축물중 상당수가 멸실 또는 파괴되어가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시켜주는 근대건축물의

소멸 등으로 인해 역사적 단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건축물은 그 지역의 역사 환경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근대사의 증거가 되므로 원형훼손과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존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관해 관심이 증대되고 논의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곳의 분석과 보전 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 근대건축물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01년 7월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등록문화재'제도가 문화재 법으로 도입됨으로써²⁾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과 보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근대건축물 중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증명전(重明殿)에 한정하여 연구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여러 문헌상의 고찰과 현장 인터뷰 및 실측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근대건축물의 보전방법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여러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명예회장,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1)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 사업 보고서, 서울특별시, 2004년 6월

2) 이주형·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 3

하였고, 근대건축물에 있어서 리노베이션의 방법론 고찰 또한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다.

2. 근대건축물 증명전의 이론적 고찰

2.1. 근대건축물 증명전의 적극적 활용의 타당성

서울은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 600년 이상 쌓아온 서울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100여개의 궁궐 및 관아, 100여 지점에 있던 유명인사의 생가 대부분이 소멸 되었고, 100여 동의 근대건축물도 20여개 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³⁾ 하지만 근래에 와서 도심부에 산재하는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단지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 지침 <서울 도심부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역사적인 매력을 보유한 지역인 정동, 명동, 관철동, 인사동, 가회동등은 <특성보존지구>로 재개발이 금지되고 지역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기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대건축물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예로 정동지역의 예 대법원 청사가 시립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 되어 활용되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구 동아일보사 사옥은 전시 공간 등의 문화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증명전은 고종황제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도서관이자, 을사조약이 이루어졌던 곳 등 여러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정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 향후 문화적인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다. 건축사적으로도 우리나라 궁중에 지어진 최초의 양관이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따라서 증명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2.2. 근대건축물의 보존의 개념

근대건축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보존 방법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존 방법들은 다양화해서 그에 맞게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 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보전의 의미는 크게 복원(復元restoration), 보존(保存preservation), 보전(保全 conservation)으로 나뉜다. 복원은 '보존' 후 옛날의 방식대로 어느 시기까지 건물을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은 고 건축물이 현대로 옮겨 따라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훼손, 파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원형의 모습을 되살

리고, 유지·보관시켜나가는 것이다. 보전은 보존의 개념을 포함하고, 보다 확대시킨 상위의 개념으로, 그곳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둬으로써 그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즉, 보다 적극적인 활용의 방법인 것이다.

<표 1> 보존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보존방법	내용	
보존	보존형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후한 부분을 수리	
	보존 및 갱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따라 부분적 개조	
	갱신	외관·구조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내부만을 개조	
보전	전체보전	건물의 전체를 보수 또는 개조	
	부분보전	외관보전	건축물의 외피만을 내부와 분리시켜 보전함
		파사드보전	건축물의 전면만을 보전함
		엘리먼트보전	건축물중 의미 있는 부분만 보전하고 신축하는 경우
	인테리어보전	역사적사건이 있었던 부분이나 독특한 양식의 인테리어를 보전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미지보전	원래의 형태가 남아 있지 않아도 이전 건물을 상기시키도록 건축함으로써 이미지를 계승하는 경우		
복원	전체복원	대상물 전체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유지	
	부분복원	건축물 중 특징이 있는 부분만을 복원하여 유지	

2.3. 증명전에 대한 고찰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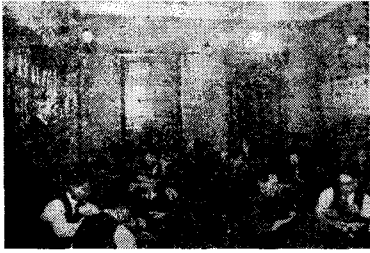
(1) 증명전의 역사

증명전은 서울 덕수궁 뒤편에 잘 드러나지 않은 건물이다. 증명전은 '무거운 빛의 공간'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 도서관 건물은 러시아 건축가인 사바뵈에 의해 세워진 르네상스풍의 2층 벽돌 건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이양관 중 하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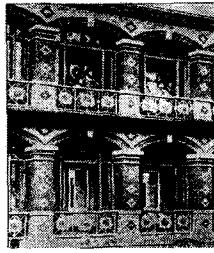
증명전은 1896년 고종황제가 세운 최초의 궁궐 도서관 이었고, 1901년에 화재로 손실된 적이 있었다. 그 후 경운궁의 화재로 인해 고종이 증명전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을 하였던 곳이며,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체결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1915년에는 경성구락부(외교클럽)의 사교장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1976년부터 사무실로 사용 되었고, 2005년 문화광관부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증명전은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근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물이라 볼 수 있다.

3) 증명전 복원 및 활용 계획, 정동극장

4) 김정동, 고종황제가 1896년 세운 궁궐의 도서관, 국립도서관 관보, 2003, 6



<그림 1> 경성구락부



<그림 2> 중명전발코니

<그림 1>은 1931년 당시 찍은 사진으로 경성구락부로 사용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그림 2>는 1905 을사조약 체결 전 시위하는 것을 고종과 영왕이 중명전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2) 중명전의 형태적 특성



<그림 3> 중명전의 외관

중명전은 지상 2층의 회색 벽돌 집으로서 정면 중앙에 현관을 두고, 그 상부 지붕의 정면과 후면 중앙에 지붕 돌출창(dormer)을 두었다. 창문은 1층에는 평아치(flatarch)창이고, 2층에는 세그멘탈 아치(segmental arch)창으로 이루어졌는데, 1층창문 위에는 장식 아치를 두었다. 또 1층과 2층벽면 사이에는 장식 벽돌 수평띠를 돌렸다.⁵⁾ 단순한 2층 벽돌집이지만 1층의 창문은 무지개 모양으로 꾸몄으며, 2층 서쪽에 베란다를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1925년의 화재로 벽면만 남아 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지었으나 처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있다.

2.4. 사바쩨의 다른 작품들의 특성

러시아인 사바쩨는 1876년 개항이후 서양의 건축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개화기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한 서양인 건축가이다. 사바쩨는 1883년에 입국하여 1904년 노일 전쟁의 발발로 귀국하기까지 20여년간을 체류하면서 개화시기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인 러시아공사관, 독립문, 손탁호텔, 세창양행 사택등을 설계하였다.

구(衙) 러시아 공사관은 중명전의 건립시기와 비슷한 1885년에 설계되었다. 공사관 건물은 6·25전쟁 때 불타고 탑 부분과 지하 2층이 남아 있었는데, 1973년 현재의 모습대로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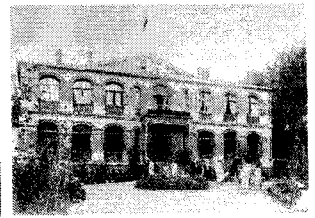
현재 남아 있는 전망탑은 회색 벽돌로 이루어졌는데, 탑 외부를 단장할 때 흰 회반죽 칠로 마감하였다. 1층에 반원 아치의 출입구가 있으며, 2층은 벽면으로 처리하고 전망대 구실을 한 3층은 사방에 한 쌍씩 반원 아치 창문을 설치하고, 위에 삼

각형 페디먼트로 구성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의 거실은 길게 늘어트린 커튼과 화려하게 장식된 벽과 바닥의 문양을 볼 수 있으며, 침대, 소파, 의자류 등은 제정 러시아의 수입가구들이었다.⁶⁾

손탁 호텔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1902년 독일 여성 손탁이 건립하였다. 1902년 10월에는 이 가옥을 헐고 2층의 서양식 호텔을 지었다. 1층은 보통실과 식당, 2층은 귀빈실로 이루어졌고, 1층과 2층의 창 사이의 벽을 작게 하고 벽 전면을 아케이드 모양으로 구성하는 등 러시아의 전형적인 건물 형태를 취하였다. 사바쩨는 20여 년간의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두 가지의 사례 뿐 아니라 여러 건축물들은 설계하였지만, 한국인의 업무처리와 공작의 기술수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되어 접촉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사바쩨는 시종 한국인과는 격리되었기에 그가 남긴 작품에도 한국인이 건축주가 된 것은 오직 독립문뿐이었고, 한국적인 특성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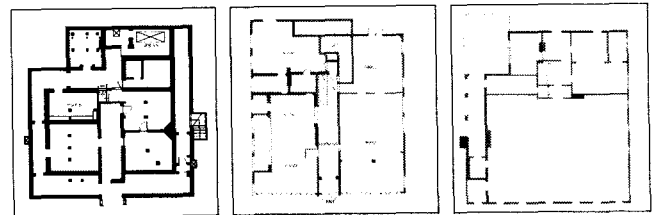
<그림 4> 구러시아 공사관



<그림 5> 손탁호텔

2.5. 중명전의 실내 공간 현황 분석

(1) 현황 분석



a) 지하1층 b) 지상1층 c) 지상2층




<그림 6> 각 층별 도면

중명전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예전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서울시에서 보전과 재활용이라는 계획아래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은 버려진 상태이다. 지상 1,2층은 건립당시의 모습이 아닌 얼마 전까지 사용되던 사무실의 흔적이 남아있다. 벽과 창문은 현대식에 맞게 색칠되고, 도배되어져있다.

5)고주환·이승구·김정진, 보수공사 사례를 통한 기법 제시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3호, 2005

6)김석수, 한국 다방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12

<표 2> 각 층별 특성

지하1층	평면적 특성	· 테두리의 긴 복도와 중앙에 크게 4공간으로 구획 · 광무함체 때 만들어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지는 지하터널의 흔적 있음. · 각종 설비 시설들이 있음.
	의장적 특징	· 벽면과 천장에 아치 형태로 이루어짐. · 붉은 벽돌조
	디테일	
		
지상1층	평면적 특성	· 중앙에 복도가 있고, 양끝으로 각 실이 있음.
	의장적 특징	· 아치의 형태가 남아있음. · 계단형태 보존
	디테일	· 바닥패턴은 덕수궁 정관현의 바닥과 유사
		
지상2층	평면적 특성	· 대실이 있고, 뒤편으로 몇 개의 방으로 구성 · 발코니와 테라스가 있음.
	의장적 특징	· 계단형태 보존 · 아치형태의 개구부 보존
	디테일	
		

3. 중명전의 보전 범위와 Guest House의 사례 조사

3.1. 보전 범위 및 방향

전장에서 언급했듯이 근대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보전 방법들이 연구 되어야 하고, 그 건축물에 맞는 보전 범위 및 보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전 범위의 설정으로 첫째, 구조적인 것은 변형 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둘째, 외관을 우선 보전을 한다. 현재의 중명전은 현재로 이어오면서 벽면의 칠과 창문의 개조 등으로 변형되었다. 이에 원형에 대한 문헌과 사진 등을 통한 이미지 복원을 한다. 셋째, 예전의 실내 모습 등을 통한 실내를 이미지 복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명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보전 방법으로써, 보전의 방법 중 이미지 보전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3.2. Guest House로 리노베이션의 당위성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게 원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모습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전시장도 효과적이겠지만 그것은 일차원적 요소이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 곳에서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다.

중명전은 최초의 궁궐도서관으로 고종이 사용했던 곳이고, 덕수궁의 화재로 손실되었을 때, 고종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며, 그 이후에 구락부로 사용하면서 외교관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이에 Guest House로의 리노베이션은 보다 많은 내·외국인이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그 시대의 공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3.3. Guest House의 사례 조사


Guest House란, 작은 호텔을 말하거나,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원이 있는 큰집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Guest House의 의미는 후자를 말한다. 우리의 역사 중 일부인 근대사에 지어진 근대건축물 안에서 머물면서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우리의 근대 건축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Guest house로는 북촌한옥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우리의 전통 가옥을 Guest House로 사용하는 곳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 안에서 전통 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유익한 곳이다. 다음은 게스트 하우스 및 호텔 등으로 리노베이션 된 사례이다.



<그림 5> 낙고재

<표 3> 게스트하우스로의 리노베이션 사례

chateau neercanne	위 치	Netherlands		원형보 전에 가까운 형태
	유형분류	외관보전 + 내부기능 변환 + 이미지보전		
	용 도	간립당시	리노베이션 후	
		1698, Castle	Guest House	
리노 베 이 션 방법	외관 및 공간구성	· 외관 원형 보전 · 공간구조 변형 없음		
	의장적 요소	· 기존건물의 구조물을 드러냄으로써 형태 보전 · 예전의 모습 재현		
				
kasteel erenstein	위 치	Limburg, Netherlands		↑
	유형분류	외관보전 + 내부기능 변환 + 이미지보전		
	용 도	간립당시	리노베이션 후	
		1713, 성	Guest House	
리노 베 이 션 방법	외관 및 공간구성	· 외관을 원형 보전 · 공간구조 변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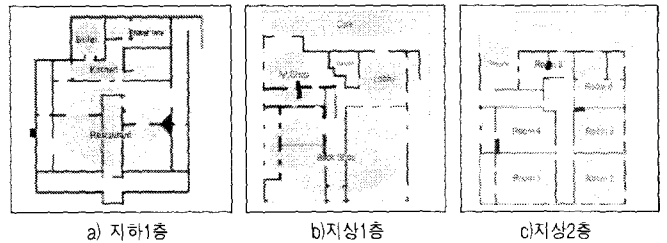
kruisheren hotel	방안	의장적 요소	· 기존건물의 구조물을 드러냄으로써 형태 보전 · 예전의 모습을 재현 및 디자인요소 첨가
	외관 모습	레스토랑1	2 Room
	위치	Maastricht, Netherlands	
	유형분류	외관보전 + 내부기능 변환 + 디자인요소	
Yoo Adelgade	방안	의장적 요소	· 기존건물의 구조물을 드러냄으로써 형태 보전 · 새로운 디자인요소 첨가
	외관 모습	입구	Room 회의실
	위치	Copenhagen, Denmark	
	유형분류	외관보전 + 내부기능 변환 + 디자인요소	
Yoo Adelgade	방안	의장적 요소	· 기존건물의 의장요소에 새로운 요소 첨가 · 새로운 디자인요소 첨가로 인한 외부와의 대조 유도
	외관 모습	외관 모습	실내 모습 디테일
	위치	Copenhagen, Denmark	
	유형분류	외관보전 + 내부기능 변환 + 디자인요소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보전 형태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근대건축물이 된다.

(2) Zoning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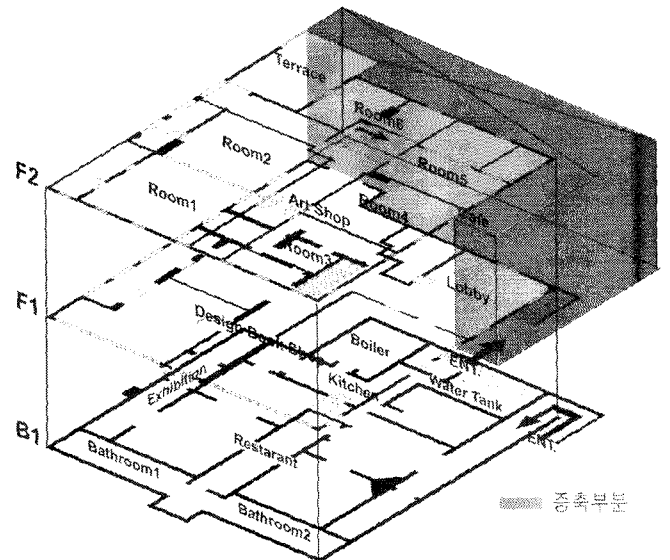
중명전의 기존의 구조체는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리노베이션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층별로 기능을 달리 하였으며, 카페, 레스토랑, 각실로 구성하여서 접근성을 높이고 근대건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층별 Zoning Plan

(3) Guest House 계획안

본 연구에서는 중명전의 리노베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어렵기에 각층별의 평면 계획안을 제시한다. 또한, 실내의 모습은 각종 문헌들에 의한 이미지 보전을 하여 그 시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그림 9> 각층별 동선 계획 및 조닝

4. 중명전을 Guest House로 활용하는 방안

4.1. 중명전의 Guest House 계획 전개

(1) Guest House의 Programming

중명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 코스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만든다.

중명전의 주 기능은 Guest House로 한다. 하지만 근대건축의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익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간에 Cafe를 두고, 지하에는 Restaurant를 만들어 숙박을 하는 사람이외의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경성 구락부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파티나 각종 이벤트를 열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체험하고 중명전을 알릴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중명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역사·문화 커뮤니티로 육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

①지하1층, 이 공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으로 사용될 공간이다. 외부에서 출입하는 계단실을 뒤로 옮기고 주 출입구로 사용한다. 원래의 보일러실을 뒷 공간으로 옮기고, 나머지 공간을 주방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둘째의 복도는 화장실 및 전시장으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파티나 각종 이벤트들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는 곳이다.

②지상1층, 1층 또한 공적인 공간으로써, 디자인 복잡으로 사

용되는 공간이다. 증명전에 새로운 건물을 배면에 증축하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간 안에서 증명전을 감상할 수 있다. 1층은 로비부분에 카페가 있고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디자인 북 샵과 아트샵이 있는 공간이 나온다.

③지상2층, 2층은 주 목적인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기존의 넓은 방을 4개로 나누어서 각실로 구성하여 총 6개의 룸이 나오게 된다. 또한 기존의 테라스가 실내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변의 경치들을 볼 수 있다.

<표 4> 리노베이션 계획 요소

유형분류		(외관보전+일부증축) + (내부기능 변환+이미지보전)	
용도		건립당시	리노베이션 후
		공평 도서관	Guest House
리노베이션 계획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물의 형태 보전 · 배면에 새로운 건물 증축하여 신구조화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큰 구조물은 바꾸지 않고, 개구부만을 위한 공간만을 마련. 	
	의장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물의 구조물을 드러냄으로써 아치 형태 노출 · 보존대상 요소는 보전한 후 이미지 보전 및 일부 디자인 요소 첨가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보전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중 보전 가치가 높은 증명전을 선택하여 리노베이션 계획하였다.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첫째,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체험하는 공익성을 띄는 것이다. 둘째, 전시의 기법으로 보여주지만 하는 공간이 아닌 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체험성을 띄어야 한다.

따라서 증명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Guest House로 리노베이션 계획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Guest House로의 계획은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에 공익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Restaurant 및 Cafe의 요소를 첨가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증명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지하1층 및 지상 1층은 각각 Restaurant, Cafe로 사용하여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Guest House로 사용하여 그 공간 안에서 숙박을 하며, 보다 극적인 체험이 이루어지게 계획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 다른 많은 근대건축물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한 활용 방안의 가이드라인이 제공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이주형·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년 3월
2. 김태정, 개화기 궁궐 건축가 사마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년 7월
3. 이혜경·윤인석,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0년 10월

4. 김석수, 한국 다방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1997년 12월
5. 김정동, 고종황제가 1896년 세운 궁궐의 도서관, 2003년 6월
6. 김삼웅, 을사늑약 1905 그 끝나지 않은 백년, 2005
7. 근대문화유산 자료 및 목록화 사업 보고서, 서울특별시, 2004년 6월
8. 조선과 건축, 1931년 3월
9. 증명전 복원 및 활용 계획, 정동극장
10.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기문당